SEP 3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03 1981년8월27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August 27,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o. 5248

"북한방문 자유의사대로"

민정당대변인 봉두완의원 밝혀

정계 고위층으로는 최초의 용납 발언

한·가의원친선협회 캐나다측 초청으로 캐나다를 방문중인 봉두완 의원은 24일밤 "교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개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7일부터 오타와에서 열리는 첫 한·가의원친선회담에 참석하는 길에 이날 토론토에 들른 봉의원은 이상훈 토론토총영사가 관저에서 베푼 리셉션에서 "많은 교포들이 인척관계등으로 북한에 간다고 들었다. 그들이 중공에 가든지, 이북에 가든지 정부는 관계치 않을 것이다. 최소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봉의원이 인솔한 한국측 의원단 김승목(민한당— 부산), 정희채(민정— 부산), 민병초(민한당— 전남)의원과 김종진 국회의전관, 성창기 민정당 대변인 보좌관등이 동석했다. 교민측으로는 고종옥 신부, 구상회 박사, 조한철 전 한인회장, 박인순 한인회장 후보, 이형인 실협회장, 이병권 체육회장, 함병섭 코리아타운번영회장, 김무호 고려보석사장, 이영현 영리무역사장, 언론인으로 윤방현 본지 편집자문위원등이 참석했다.

한·가의원회담 오타와에서

◇봉두완의원이 교포들의 북한방문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왼쪽에는 고종옥 신부, 그 오른쪽으로 김승목 의원(얼굴이 가렸다), 민병초 의원, 조흥래 영사, 박영철 부총영사, 백승운 연합통신특파원, 정희채 의원, 구상회 박사, 박인순 한인회장 후보.

정계 고위인사가 교포들의 북한방문 자유화문제를 밝힌 것은 이번 봉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의 총선중 마포구에서 출마 전국 최다득표 의원으로 당선된 언론인 출신의 봉의원은 여당 민정당의 중앙집행위원겸대변인이라는 요직을 갖고 있다

이제까지 이범석 통일원장관 김재성 외무부대변인등은 모두 교포들의 북한방문에 대해 반대 경고했었다. ※(캐나다뉴스) 81년 1월14일자 및 1월24일자)

토론토지역 에서는 이미 여러 인사가 북한을 방문했었고 모 태권도사범은 평양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봉의원이 을 본지편집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북한방문문제에 대해 설명하다가 잠간 중단한 순간 이총영사는 즉시 종전과 같은 북한방문 반대견해를 폈다 이총영사는 "교포들이 이북 가는 것은 환영할 일이 못된다 이유는 북한의 기만성으로 선의의 방문자가 그릇된 인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강제로 교포들의 북한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포들은 가능하면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봉의원 발언에 반대입장을 취했다

봉의원은 다시 "내가 김일성이라면 외국인사들을 불러들이지 않겠다 미국의 솔라즈 의원도 "내 정치경력중 가장 부끄러운게 이북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고 르몽드(프랑스)지편집국장도 "이북에 갔더니 숨이 막히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봉의원 발언에 덧붙여정희채 의원은 "누구든지 될 수 있으면 북한에 가서 보고 올 필요도 있다 미국내 한국인 학자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야 북한의 기만성을 발견 한국에 대한 반국가행위를 중지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봉의원은 이날 이밖에 ①한국의 언론은 반국가행위와 안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보도한다 ②정부의 압력으로 직장을 잃은 언론인들은 정부업체등에 모두 취직됐다 ③한·가의원회담에서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확대문제를 거론하겠다 ④7월부터 이민가는 사람은 모국 은행서 10만달러까지 지참 출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국내외환사정상 아직 실천되지 못했다는 것을 밝혔다

한국인 移民 3번째많아

79年한해 總2만9천명移住, 멕시코·比이어

미국에 이민오는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은 멕시코인과 필리핀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이 연방이민국 통계자료에서 밝혀졌다.

유에스 뉴스 엔드 월드 리포트지 최근호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1979년의 경우 한국서 이민온 사람은 2만9천248명으로 이해 전체 이민의 6.4%를 차지했다.

멕시코 이민은 11.3%, 필리핀 이민은 4만1천3백명으로 전체의 9%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 다음으로 이민숫자가 많은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대만—2만4천2백64명(5.3%) ▲베트남—2만2천5백46명(4.9%) ▲자마이카—1만9천7백14(4.3%) ▲인도—1만9천7백8(4.3%) ▲도미니카—1만7천5백19(3.8%) ▲쿠바—1만5천5백85(3.4%) ▲영국—1만3천9백7(3%)

조각가 장연탁씨 CNE등에 출품

토론토의 조각가 장연탁씨는 지난 ?일부터 CNE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캐나다조각가협회 15인 합동전에 대리석 작품<헌신>을 출품 전시중이다

조각가협회는 최근 장씨의 작품수준을 인정 장씨를 회원으로 맞았다

조각협회는 회원작품중 85점을 선정 캐나다를 비롯 세계각지를 장기 순회 전시 이 순회전시는 9월 몬트리얼 캘가리 밴쿠버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미국 멕시코 유럽등지를 돌며 합동전시된다

동협회는 장씨의 건의에 따라 한국전시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다

장씨 작품으로는 18인치의 대리석 작품<무제>가 뽑혔다

한편 장씨부인은 지난 13일 10년만에 차남 데이빗·현을 순산 장씨 가정은 겹친 경사로 기쁨을 더하고 있다 이로서 장씨부부는 2남1녀를 가졌다

◇조각가 장연탁씨

실각된 화국봉 전 일본외상 만나

(북경) 실각된 화국봉 전 중공당주석은 자취를 감춘지 근1년만에 나타나 일본의 마사요시 전 외상을 만났다고 일본측 소식통들이 밝혔다

화국봉의 등장이 그의정계복귀를 뜻하지는 않는다

두사람은 정치문제를 제외 날씨등과 일본에 있는 화의 친구들 소식등에 관한 것이었다

「화」는 현재 제7 부주석으로 강등됐으며 작년11월 실각설이 퍼진후 정계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일본외교소식통은 이번 회담이 마사요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마사요시씨는 작년 여름 사망한 오히라수상 재직시 외상이었고 화와는 오랜 친분을 갖고있다

화가 당주석자격으로 공식회담에 나타난 곳은 오히라수상의 장례식이었다 이때 화의 위로에 감명을 받은 오히라여사는 이후 계속 화와 소식을 나누었고 이번회담도 오히라 여사의 중재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한다

"딘"소장 별세

6·25의 맹장, 북괴군에 포로

(버클리·캘리포니아) 한국전의 맹장 윌리암·딘 소장이 향년 82세로 자택에서 서거했다.

딘소장은 한국전에서 미군 장성으로는 단 1명 북한에 포로로 잡히기도했다. 그는 최전선에서 길을잃어 피체됐었다.

딘소장은 세계2차대전중 미제44사단장으로 유럽에 참전 활약했다.

딘소장은 동성무공훈장등 여러개의 훈장을 탔고, 51년에는 한국동란중의 활약으로 최고 훈장을 받았다.

◇한국전 포로 딘소장 별세—한국동란 당시 제24사단장으로 대전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휴전후 석방되었다

현 주캐나다 이규현 한국대사는 6.25동란중 헌소장의 통역을 지낸바 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533 2361

社 告

全美洲 교포청소년 文藝콩쿨

중고대생중심 국·영문작품 모집·표창

조국애고취내용, 장원 2명선정, 모국관광 부상

북미교포청소년의 조국애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본보는 전 미주 청소년 문예콩쿨을 주최하여 조국과의유대를 높이기로 했읍니다.

미주내의 중·고생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참여도환영하는 청소년 백일장은주미한국대사관, LA한국문회원, 뉴욕한국문화원이 후원하고 있읍니다.

이 백일장에 제출하는작품은 시사체 수필문으로서 재북미 동포사회의 애국심고취와 조국과의 일체감을 갖는 주제이면 어느 작품도 환영합니다.

작품은 한글이나 영어중 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수는 한글일 경우, 타자지 10매이내, 영문일 경우 5매이내로 하면 됩니다.

전미주 규모로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 문예콩쿨참가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작품에 대해 장원, 우수상, 가작등을 선정하여 표창합 니다.

제출된 작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2명은 장원으로 선정, 문공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6박7일동안 본국 관광을 제공 합니다.

그리고 우수상 3명과 가작 수편을 선정, 상패와메달로 노력을 높이 평가 합니다.

이번 청소년문예 콩쿨에 제출한 작품은 본사에서 오는 9월30일(수)까지 마감하며 당선작 발표는 10월22일 지면을 통해 공고합니다.

미주속의 한국인이 문화민족이란 긍지를 높여주는 청소년문예콩쿨에 교포여러분의 성원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일보 각지사 접수, 9월30일마감, 10월22일 발표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민화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 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를 신장개업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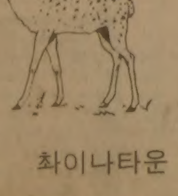
최 호 권 PETER CHAN 배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평 일 : 9시~9시
토·일요일 : 9시~9시
CHINA타운 내



좌이나타운 내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 × 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Daily News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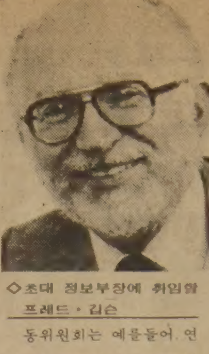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RCMP 불법정보행위

정보업무 분리. 정보부창설



◇초대 정보부장에 취임할 프레드·깁슨

(오타와)트루도 수상및 일부장관은 연방경찰(RCMP)이 지난 20년간 불법 정보수집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체 넘겨버렸다고 RCMP비위를 조사하는 맥도날드 위원회가 25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트루도수상이나 법무장관등이 경찰이 어떤·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연방경찰에서 정보업무를 분리, 전 법무차관 프레드릭·깁슨씨를 부장으로한 정보부를 창설키로 했다.

1,800페이지에 달하는동 위원회 보고서는 연방경찰의 정보수집 행위가 불법적이었을뿐 아니라, 정부각료및 의원들 까지 기만해 왔다고 밝혔다.

알버타주법원 데빗·맥도날드 판사를 위원장으로한 이 위원회는 1970년 퀘벡주에서 문제된 연방경찰의 불법정보행위에 뒤따라 창설되어 정부의 자문기관 구실을 해왔다.

동위원회는 예를들어 연방경찰이 75년에 정보원을 고용, 자유당및 정부각료들을 감시해 왔다면서 "이렇게 얻은 정보가 캐나다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 고 밝혔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경찰은 70~76년에 퀘벡자유당의 행위 및 퀘벡당, 신민당, 공산당(캐나다)등을 항상 체크, 감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258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중에는 민간인이 책임자인 정보부 창설, 합법적정보수집행위등이 있다.

트루도 수상도 1년전 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두했었다.

나이아가라 창녀 끓어

(나이아가라)세계적 관광지 나이아가라에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을 노린 창녀들이 들끓어 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주민을 대표한 힐다·코트니여사는 거의 1주일이상 주민들을 동원, 창녀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힐다 여사는 주민들을창녀들이 잘 나오는 요소마다 배치, 창녀와 고객들의 거래장면을 사진으로 포착하기도 한다. 그들은 "당신의 남편은 오늘밤 어디에?"라는 슬로건을 들고 거리에 지켜 서있다.

주민들의 데모로 창녀들은 주택가를 떠나 브릿지가로 몰려들지만 경찰의 감시가 심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경찰은 이달들어 이미14명의 창녀를 체포했다.

11년간 나이아가라에서 살아왔다는 힐다 여사는"3명의 포주로 위협을 받아왔다"면서 창녀가 없어질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기쁜 소리 444-4011

자녀와 그 장래

안 상 엽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천태만상의 다양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약 3개월의 긴 여름방학을 이제 거의 다 보내고, 앞으로 2주면 수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학교로 돌아간다 장래를 위한 행진이라 보겠다. 어리광과 말썽을 부리던 아들과 딸이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국민학교로 국민학교에서 이젠 상당히 어른다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또한 모든 의무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제각기 멀고 먼 장래의 초석이 될 기술학교와 대학과 그리고 직장이 깔려있는 사회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다

몸이 커가고 ,지식과 지혜가 자라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에게는 사랑스럽고 기특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제나름대로의 의견을 말하고 제 고집대로 얼굴을 부루퉁하는 십대소년 소녀가 되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은 점차 없어지면서·미운 짓은 다 골라 하고 잠시도 부모의 머리에서 잊을 수 없는 염려의 대상으로 가득해진다 그것이 잘못되고 틀린 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이면 자식의 먼 장래가 대충 내다보인다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고 "훌륭한사람 되라… 법관이 되라 정치가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의사가 되라" 등의 결정과는 상상도 못하는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마 이때가 되면 한여름을 지나 초가을과 같이 이미 늦어진 때가 된 것이다

자식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있다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미 늦어졌다고 후회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성장과 배움의 과정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계속되지만 어떤 집을 짓기 위한 기초를 다듬고 어떤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옥토를 다듬고 씨를 뿌리는 것은 일정한 지회가 있는 것이다 즉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만 사람은 2세 3세때에 이미 한 인간의 형태(Form)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것을 위한 가장 중책의 인물이 부모인 것이다 학교교육과 사회는 집을 쌓아 올려가는 과정의 기술이요 자라는 곡식을 가꾸는 농부역에 불과하다

그 다음은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 어떻게 밑거름을 넣어주고 재료를 뒷받침했는지에 달려있다 자녀의 장래를 부모의 의사로 결정해 버리거나 마치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같은 권위의식으로 장래까지 결정짓는 것이 부모의 책임으로 생각한다면 기형적인 결과를 얻고 그들의 장래는 불행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것이다 좋은 콩을 따기 위해서는 콩덩굴에 필요한 거름과 물과 햇볕이 필요하고 맛있는 사과를 따려면 사과나무에 필요한 손질과 농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콩덩굴에서 옥수수를 따고 사과나무에서 복숭아를 얻으려는 욕심으로 거름과 물을 뿌리면서 열을 올린다면 그 결과는 확실히 불행할 것이다

자식을 두고 "네 생긴대로… 네멋대로 되어라" 하는 바쁜 운명론의 부모는 자식과의 불행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작은 그릇에 정도에 넘치는 물을 퍼붓는다든지 소화도 못하는 뱃속에 좋은 음식이라고 마구 퍼먹인다든지 따라가지도 못하는 어린 발걸음을 뛰라고 채찍질을 한다든지 정도에 안맞는 "천재"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구가 된 자식을 가진 부모는 보다 더 불행하다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과 정성으로 장래를 염려하는 부모라면 이런 불행을 만들기 전에 교육과 성장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길을 곧 택해야 한다 치마에서 바람을 내거나 극성을 부리는 아버지들은 먼저 귀여운 자식이 한 인간으로 그 몸과 지식과 정과 덕이 균형있게 성장하고 있는 지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랑의 희생자"가 된다함은 자기 욕심의 추구나 권위주의를 깨치고 영육간에 올바른 성장을 위해 눈물과 땀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믿음으로 밑거름해 주는 노력인 것을 지적해서 말하고 싶다

(토론토한인선교교회 담임목사)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㊼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현재로 보아서는 북극사람들이 먹는 동물의 고기와 기름으로된음식이 백인들이 만든 분말로된 음식으로 거의가 바뀌어가는 과정에 와있다.

이 장의 마지막에 이러한 당국의 처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아마 바렌은 항상먹는 사슴고기말고 다른것도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이할미우트 사람들이 사슴고기에만 의존하고 사는것이 ,특히 굶어 죽는 것이 이 제한된 사슴에기인하는 것은 바보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바렌에는 사슴만 살고있지 않다. 겨울에 헤아릴수 없는 북극 토끼들이바렌의 북쪽끝에 떼를지어내려와서 맛이좋은 부드러운 고기를 제공해 준다. 또한 봄과 가을에는 들판을 눈처럼 뒤덮을 정도로 많은 흰 뇌조들이 있다. 여름철이 되면 강과 호수에는 화이트 휘쉬(Whitefish), 송어, 썩커(Sucker)가 많아 그물만 던지면 얼마든지잡을수 있다. 이상하지만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그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모든 에스키모들이 공통적으로 정확한 솜씨로 창으로 고기를 낚는다. 이들의 명민함을 당국 사람들은원시적인 사고방식을 면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틀림없이 당국에서는 이 미련한 원시인들이 그물을 만들어 쓰는법을몰라서 강과 호수에 있는 무진장한 양식이 그대로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이 계획이 아주 훌륭하다고 판정이 되어 내가 1948년 바렌으로 돌아갈때 당국은이할미우트 사람들에게 분배하도록 많은 어망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어망의 사용법을 일러주어 겨울에 굶어죽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신신당부하는 것이었다. 정부관리들과 입씨름을 하는것은 쓸데 없는줄 알고 주는대로 어망을 갖고갔다. 물론이 사람들에게 어망을 갖다주고 사용법도 일러주었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고맙게 받고 내 카누까지 빌려서 어망치는 법도 배울 정도로 능청을 떨었다.

나는 명령을 이행했고, 오타와에있는 관리들을 마음놓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열의에 찬 관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점이 몇가지 있다.

첫째로, 이할미우트 사람들은「카약」이라는 좁고긴 배를 사용하는데 해변에 살고있는 에스키모처럼 큰「우미약」과 같은 배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카약으로 어망을 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였다.

두번째로, 이 사람들이양식이 떨어지는 기간이 겨울과 봄철인데, 이때는 10~12피트까지 얼어붙은 호수나 강물에 그물을 칠수없기 때문에 순진한 이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자연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이할미우트사람들이 왜 어망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고기가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물고기로서는 바렌에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있었다. 모든 문제는 지방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내륙에 서식하는 어떤물고기나 토끼나 또는 뇌조도 이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지방분의 극히 적은 일부밖에는 제공해 주지 않는다. 물고기는 여름에식량이 풍부했을때 간이식용으로는 적합하다.

겨울에는 오랫동안 물고기만 먹으면 이 사람들은 독약을 먹는것처럼 위험해진다. 그리고 필요불가결한 요소,즉 지방분이 결핍된 굶주림은 물고기만 섭취한 내장을 팽창시키며, 아무것도 먹지못한 비어있을 창자처럼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한다.

사슴고기에서 물고기로 주식을 바꾼 북극의사람들에 대하여 뒤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정부의 높은 관리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빚어진 비극적인 참상에 대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사슴을 먹어야 한다. 사슴 밖에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미래에도 사슴고기를 먹어야 하며 그들의 신체구조가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만일에 사슴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면 그들의 마지막 사람까지 이글루 안에서 굶어 죽어갈 것이고 이들을 보살펴 준다는 당국의 문제도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당국이 보내준 어망은 리트레이크 주변의 바위에 접쳐진채로 풍화에 하얗게 탈색되어 없어질 것이고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계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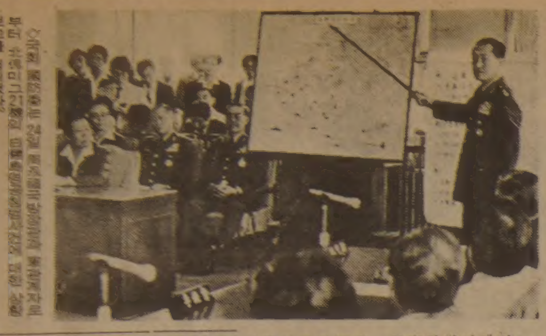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먼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먼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먼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어디로 모실까요?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B)535-6004 R)293-9970, 5823
535-8801 최 동 주

"北傀機침범 戰爭유발" 警告

國防委, 白翎島사태에 어떤 挑發도 분쇄…對話응하라



△국회 國防委는 24일 周永福국방장관과 軍관계자로부터 北傀미그21機의 白翎島영공침범사건에 대한 상황보고를 청취했다.

국회는 24일하오 國防委를 열고 周永福국방장관과 軍관계자들을 불러 지난12일 北傀미그機 2대의 白翎島상공 침범사건에 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뒤 北傀의 領空侵犯행위를 규탄하는 3개항의 警告文을 채택했다.

國防委는 이날채택한 警告文을 통해『北傀공군기의 白翎島 상공침투행위는 休戰협정에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이같은 직접적인 중대挑發행위는 긴장을 高潮시켜 전쟁사태를 유발할수 있는것으로 단정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경고문은▲무장간첩南派와 각종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北傀의 南侵야욕과 反민족적행위를 규탄하며 북괴의 어떤도발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단호히 분쇄할것을 엄중경고한다▲10·26이후 우리사회가 안정을 회복한데대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對應태세를 시험, 군사충돌을 誘發하려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로인해 야기되는 모든사태는 북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북괴는 僞裝平和공세로 한국의 孤立化를 책동하며 우리의 평화통일의지를 부정하고 있으나 1·12및 6·5提議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깨닫고 南北대화에 응할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合參관계자는 보고를 통해『8월12일 낮12시18분에서 20분까지 북괴 미그21機 2대가 백령도상공중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과했으며 高度5백피트, 속도 5백40노트의 低空超高速이었다』고 밝히고『敵機의 출현에 대해 우리공군은 水原에서 F5E 2대를 즉각 출동시켰으나 이때 敵機는 이미 그들의 瓮津기지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敵機출현은▲사진촬영▲我軍의 對空태세 점검▲군사停戰委에 목적을둔 것같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최근의 북괴미그21기의 領空침범사건으로 다』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敵의 白翎島상공침투는 다음날 군사停戰委를 통해 이를 강력항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의 북괴 미그21기의 領空침범사건외에도▲75년 2월26일 白翎島영공에 2대가 침범▲75년 3월24일 白翎島에 4대침공▲80년 6월21일 京畿灣좌측에서 포착된 敵무장간첩선 6대가 엄호차출동한경우등을 들었다.

머피트宣教師 접견 全대통령, 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4일상오 美國연합長老會 대만선교회의 새무얼·머피트선교사를 접견, 국민훈장 牡丹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李光杓문공, 金鍾煥총무처장관, 朴致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머피트선교사부인이 배석했다.

赤化野慾 강력규탄

統一고문회의 民統協 對北성명 支持

國土統一顧問會議는 24일상오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지난20일의 民族統一中央協議會 對北성명내용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許政회의 의장등 31명의 參席元老들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날성명은『民族통일중앙협의회의 對北성명은 통일에 대한 우리국민 전체의 기본적이요 일관된 의사임을 재천명한 것이므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1·12제의와 6·5제의는 民族統一을 위한 최상의 방도』라고 지적하고『北韓측의 태도는 평화통일위한 對話에는 뜻이없고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고 赤化統一을 위한 공산혁명의 與件조성이라는 불순한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北韓측의 이러한 反民族的, 反平和的, 反民主的태도를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명은『北韓당국이 공산당의 조종을 받지않는 독자적인 정당·사회단체가 있을것이라고 누가 믿을것이며 그러한 北韓당국이 도리어 엉뚱하게도 정당·사회단체만의 연석회의를 주장하고 나서는것이야말로 너무도 可笑로운일이 아닐수없다』고 말하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민주국가로서 국민이 모두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의지를 같이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국토통일 고문은 다음과 같다.

▲議長=許政▲顧問=姜元龍 金容完 金東煥 金貞烈 柳達永 義澤 毛允淑 閔復基 朴順天 白樂濬 白斗鎭 鮮于煇 宋志英 申泰煥 兪鎭午 尹致暎 李丙燾 李瑄根 李殷相 李應俊 李寅基 李哲承 李澔 李孝祥 張坰淳 鄭一亨 崔錫采 韓景職 洪鍾仁 黃聖秀

外務委 28日소집

국회는 오는28일 外務委를 열어 韓日外相會談 결과를 듣고 韓日관계에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日의 眞意·腹案검토

政府, 安保·經協소극자세에 對應策

盧外務 歸國성명 "액수未合意 국민에 罪悚"

정부는 24일 韓日外相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盧信永외무장관으로부터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日側의 자세등을 청취하고 이런의 對應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회담에서 드러난 兩國의 異見과 日側의 對韓經協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중시, 日側의 정확한 眞意와 腹案을 타진하는 한편 韓日經協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日側의 衛分擔的 發想을 비롯한 韓日經協에 대한 日本측의 소극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1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定期閣僚會談에 대비하여 우리측의 입장을 관철하기위해 多角的인 對日외교를 펼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盧장관은 23일 金浦공항에서 귀국성명을 통해『이번 회담은 제5공화국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외상회담으로 양국관계를 새차원에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韓日經協에 언급『日側은 우리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성의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말하고『그러나 對韓經協의 액수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못했다』고 밝히고『이점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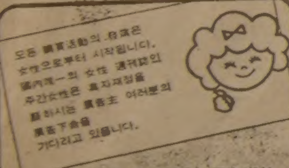
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하고『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外相會談에서 제시된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문제가 완만히 타결돼 조속한 頂上會談개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權 民正黨總長밝혀

"韓·日頂上會談조속실현은 協力분위기확립 先行돼야"

【호놀룰루=聯】權正達民正黨사무총장은 23일『韓日頂上會談이 조속히 실현되기위해서는 양국의 協力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이런 회담은 제5공화국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한국외상회담을 통해 지난주 外相會談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경우 이의 조속한 실현이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4일의 日本방문을 마치고 하와이로 가는도중 機上에서 수행기자에게『日本이 韓國과 함께 共和國의 출범이후 韓日兩國은 현재 새로운 차원에서 긴밀한 協力관계를 유지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모든 啓蒙活動의 始發은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僑內唯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高品位의 廣告主 여러분의 廣告下命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体

주간女性

(416) 533－2361

大田·光州·大邱·原州·江陵·清州·天安
全州·南原·木浦·順天·安東·晋州·濟州

14개 成長據點도시 集中육성

28개生活圈, 需要 완전充足

住宅 3백22만호建設, 不足率 18%로

太白·智異등 中央 직접開發
서울~大田간 高速電鐵부설
金浦 2倍규모 새 國際空港
서울~丹陽간엔 運河를건설

내년부터10年 2차國土개발

정부는 내년부터 10년동안 서울·釜山지역의 인구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되 大田·光州·大邱등 14개지방성장거점도시를 집중 개발하고 전국을 28개지역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국토의 균형있는개발, 인구의 지방 정착한 (定住體系)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金周南건설부장관은 24일 내년부터 오는91년까지 시행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試案)을 발표, 이기간중 경제성장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세계적으로 달성하기위해 서울—釜山간 고속전철건설 (계획기간중 서울—大田간 1백60㎞건설)、金浦공항의 2배규모인 새로운 국제공항건설, 서울—丹陽간 운하건설사업을 비롯한 40개대단위사업을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된 제2차계획 시안내용은 기본방향으로 전국을 28개 생활권으로 구분▲서울·釜山·大田·光州·大邱를 5대도시생활권▲春川·全州·清州등 17개도시를 지방도시생활권▲寧越·瑞山등 6개 생활권도시는 농촌생활권으로 각각 육성하여 생활권마다 모든생활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줌으로써 각종 행정허가 또는 여권발급등을위해 서울로 나올필요없이 각생활권내서 모든 일상생활을 충족시킬수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오는86년까지 大田·光州·大邱등 3대지방도시를 서울수준의 대도시로, 原州등 11개도시는 87년부터 大田수준의 대도시로 각각육성키로 하고 이를뒷받침하기위해 내년중에 수도권 정비법및 성장거점 도시개발 촉진법을제정,시행키로했다.

또한 계획기간중 총3백22만호의 주택을건설, 전국의 주택부족률을 현재의 25·5%에서 18·7%로 낮추고 대도시의 땅값상승과 택지확보를위해 추진키로했던「택지上限制」설정문제는 일단 제외키로 했다.

교통은 서울—釜山간 고속전철,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외에 大邱—光州간 동서고속도로 등 4개지역 346㎞의 고속도로를 새로건설하는한편 서울—仁川등 6개지역의 기존 고속도로는 4차선~6차선으로 확장키로했다.

이날 발표된 제2차계획 시안은 오는9월의 공청회와 10월의 국토건설종합 계획심의회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요사업계획

◇교통▲서울—釜山간 고속전철중 서울—大田간 1백60㎞▲호남선복선화 裡里—木浦간 1백72㎞▲동서고속도로 大邱—光州간 1백75㎞▲서해안고속도로중 仁川—溫陽간 75㎞▲釜山항 확장공사 안벽 5천5백90m등▲수도권 국제공항 신설 연간 2천5백91만명 처리능력▲新葛里 남부화물기지 7백만톤규모▲서울지하철 2~5호선 1백22·8㎞▲釜山지하철 1~2호선 46·1㎞

◇공업단지▲溫山공업단지 확장 10·88㎢▲牙山 또는 光陽灣공업지조성 8㎢▲北坪산업기지확장▲巨濟 원유비축기지 4백50만㎘▲清원유비축기지 4백30만㎘

◇농업▲沃舒대단위농업개발 4백44㎞▲榮山江대단위 농업개발 1·2단계 35㎞▲大湖대단위 농업종합개발(계속) 7㎞

◇수자원▲忠州다목적댐(계속) 연간 33억8천만톤▲陝川 연간 5억2천4백만톤▲住岩 연간 5억4백만톤▲臨河 연간 2억3천7백만톤▲臨溪 연간 5억톤▲咸陽 연간 2억1백만톤▲洪川 연간 7억9천9백만톤▲洛東江하구언 연간 6억4천8백만톤▲錦江하구언 연간 3억4천만톤▲錦江、洛東江、蟾津江、南江、大清、수도권、漢江 7개 광역상수도 1일 2백50만톤 규모

◇에너지▲桂馬원자력단지(7·8·11·12호기) 3백60만㎾▲富邱원자력단지(9·10·13·14호기) 3백60만㎾▲加露林灣조력발전 40만㎾▲平澤LNG 연간 3백만톤

◇환경▲수도권·蔚山등 7개공업단지와 大邱등 7개도시 하수처리장 1일 2천8백만톤▲하천개수

◇주택▲공공부문 택지개발 2백83㎢(85억8천만평)▲주택건설 3백22만호

◇특정지역▲伽倻山·德裕山·智異山 2천7백3㎢▲다도해지역 2천1백60㎢▲태백산지역 3천1백76㎢▲濟州道 1천7백92㎢

慶北高나 善隣商高나

鳳凰大旗야구 오늘 待望의 爭覇

熱戰18日…3~4位戰도

전국49개팀이 참가한가운데 지난6일 개막된 봉황대기쟁탈 제11회 전국고교야구대회는 18일간의 열전끝에 마지막 2팀을 남겨놓고 25일하오4시 서울운동장야구장서 대망의 決勝한판을 벌이게 되었다. 善隣商高나, 慶北高냐.

영광의 초록봉황기는 어디로 갈것인가。봉황대기 제1회(71년)、5회(75년) 대회우승팀인 명문慶北高, 전국制覇의 꿈을 기어코 이루겠다는 패기의 善隣商간의 명승부는 전국야구팬들의 관심을 모으게 될것이다。

결승전에앞서 하오1시부터는 天安北一高와 釜山商高의 3、4위결승전이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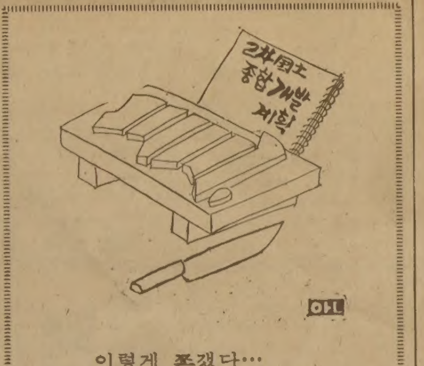
어제의 成績 (24일)

◆준결승

善隣商	0	0	0	1	0	3	1	0	0	5
北一高	0	0	0	0	0	0	0	0	0	0
慶北高	0	0	0	1	0	0	5	0	0	6
釜山商	0	0	0	0	0	0	0	0	0	0

한독양말

社会漫評



이렇게 조갰다… 저렇게 조갰다…

地平線

『여기 지구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뎠노라。기원후 1969년7월。우리는 인류의 평화를위해 왔노라』—이것은 지금 달표면에 놓여있을 새 테인리스 강판에 새겨져있는 글이다。아폴로 2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내렸던 미국의 닐·암스트롱과 에드윈·앨드린이 갖다 놓은 기념패다。인간이 가장 가까운 천체에 발을 디뎠던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고있는 지구는 달을 거느리고있는 혹성으로서는 해에 가장 가까운 천체다。그러나 사람이 달의 저쪽을 보게된 것은 59년10월의 일이었다。달은 늘 토끼가 방아를 찧고있는 한쪽 얼굴만을 지구에 대고있기때문이다。소련의 위성 루니크 3호는 59년10월16일 달을 돌면서 사람이 보지못했던 쪽의 사진을 찍어 18일 지구로 보내왔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해도 사람은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거우 벗어난 셈이다。「지구위 개구리」인 셈이다。사람은 이제 막 티끌만한 지구의 둘레에 손을 펼쳐 탐색을 시작하고 있다。지난 77년9월5일 지구를 떠난 미국우주선 보이저 2호가 자그마치 22억4천만㎞를 날았다고 하지만 우주공간에서 보자면 티끌만큼의 거리에 지나지않는다。

▼보이저 2호는 4년에서 닷새 모자라는 긴 시간의 외로운 비행 끝에 드디어 토성곁 10만1백38㎞ 상공을 지나게된다。이때는 한국시간으로 내일낮 12시25분이다。보이저 2호가 얼마나 멀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사진을 보내온 전파신호가 지구까지 오는데 85분이나 걸린다는 것으로도 알수 있다。빛의 속도로 1시간25분이 걸리는 거리다。

▼4백와트의 자그마한 원자력 발전기로 움직이는 이 우주선은 이미 작년 11월 1호가 지금의 2호보다 약간 먼 공간에서 토성을 관측했었다。그결과 토성을 돌고 있는 달은 적어도 4개가 더 많아 16개쯤 된다는게 밝혀졌었다。그 중에는 파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궤도를 돌고있는 것도 있었다。유명한 토성 둘레의 고리도 6개가 아니라 1천개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고 보면 毛澤東의 「大長征」이래야 고작 延安까지 걸었던 2만5천리였다는걸 새삼 생각하게 된다。인간의 아귀다툼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 하는 뉘우침이다。또한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철학자 칸트가 우주공간 저 너머 星雲을 꿰뚫어 봤다는 놀라운 사실도 기억하게된다。인간은 티끌만도 못하면서도 또한 우주공간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414
은 : 온스당 US 8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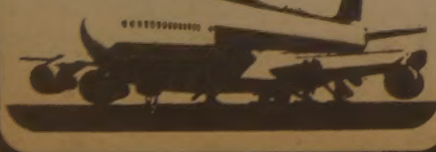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숯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사진촬영대회 시상식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열린 제6회 사진촬영대회 시상식이 다음과 같이 거행되오니 당일 대회 참여자는 물론 많은 사진애호가 교민들이 참석하셔서 사진을 감상하시고 좋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상자 명단은 이날 현장서 발표됩니다.

때 : 1981년9월19일(토) 하오7시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TORONTO, ONT)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드림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다시 祖國을 배우러 왔읍니다

—64년「殉敎者」로 석사學位받은 在美作家 리처드金

"자기것알아야 自尊意識살아 美知性들도 東洋쪽에 기울어"

교환敎授로 來韓 서울大서 1年間강의

64년에 소설「殉敎者」를 발표해서 크게화제됐던 在美作家 리처드·金씨(50·金恩國)가 서울땅을 밟았다. 그는 서울에서 1년간머물며 풀브라이트재단의 교환교수로서 서울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게 된다.

인터뷰

『서울은 6년만에 다시와 보는 것이지요. 겨우 6년만인데 서울의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서 모든 것을 다시배워야겠다고 느꼈읍니다. 서울에 온 목적은 강의니까 우선 학생들을 충실하게 가르치고싶어요. 그 다음 되도록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시배우려고 합니다』

리처드·金의 이름을 세상에 크게 알려던「殉敎者」는 아이오와大學「작가워크숍」석사학위 創作品으로 제출했던 소설이었다. 「殉敎者」는 리처드·金이 6·25당시 청년장교로 戰場에서 겪었던 체험을 소설 主題의 기반으로 삼았었다. 그는 50년도에 대학에 입학, 전쟁이 터지면서 곧장 戰場으로나가 해병대로, 보병장교로, 연락장교로 54년까지 전투복을 입고 누볐다.

55년에 渡美, 버몬트의 미들·베리 대학과 존·홉킨즈대학에서 新聞文學과 창작을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이오와대학에「殉敎者」를 제출해서 받은 학위까지 모두 3개대학의 석사학위를 갖고있다.

『석사학위를 받기위해 쓴것이 의외로 화제가됐지요. 그러나 본래 저는 역사철학과 정치철학을 배우고 싶었고, 직업적인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않았어요. 첫 작품이 호평을 받아「審判者」와「잃어버린 이름」등을 계속해서 써왔지요. 이 소설들도「殉敎者」와 마찬가지로 영어로 쓴 것입니다. 저는 우리말로 소설을 써 본 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작가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지요』

그는『우리 말에 자신이없어서 한국어로 소설을 쓸수가 없었다』고 고백한다. 日帝, 해방, 6·25등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며 한국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얻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 26년동안 거주했기때문에 우리글로 소설을 쓰는 것에는 자신이 서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미국인 여성 페넬로프 여사와결혼, 대학을 다니고 있는 1남1녀를 두고 있다. 부인 페넬로프여사는 사회학박사로, 현재 매사추세츠 대학부설 경제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은 제가 하고 싶었던 역사철학을 공부했어요. 10년동안 소설은 전혀쓰지않고 지냈지요. 풀·타임교수로서 일정한 학교에서 재직하지는 않고, 이 곳저곳 대학의 초빙교수로서 단기간 가르치곤 했지요. 원래 직업작가가 되려고 한적이없었고, 아직도 여러가지를 배우는것이 즐겁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다시 소설을 쓰게 될것 같지 않아요』

그는『미국작가들도 우리나라 작가이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미국작가연맹에서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 현역작가의 3%만이 소설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多數는 원고료수입이 연평균 3천달러도 되지않아 대학이나 출판사등지에서 직업을 따로 가지고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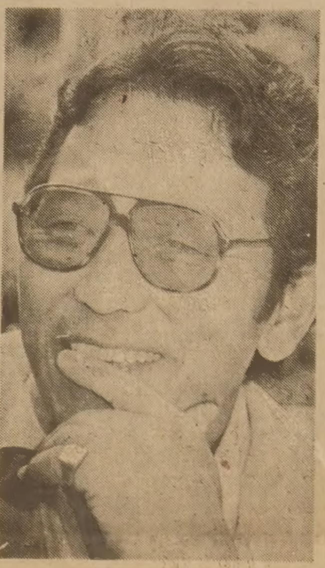
『미국에서 26년간이나 살아오지만,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아무 것도 모르는 無知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낮추지 않을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 해서 글을 쓰고, 헤겔을 읽을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자신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않아요. 특히 西洋文化와 西洋精神은 直線的이어서, 요즈음은 미국의 知性들도 難解한 東洋철학과 동양종교에 기울어지는 경향입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1년간, 미국에서 사느라고 배우지 못했던 國學을 배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外國이나 外國語는 먼저 國學을 잘 배우고 깊이있게 정리한 뒤에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우리나라엔 英語붐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도 결국 우리것을 더 잘 하기위해 배우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國學발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믿어요. 자기것을 모르고 남의 것만을 알면 한 개인으로서의 自尊意識은 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는 며칠전 이상하고 기분나쁜일을 겪었다. 시내 레스토랑에서 전화를 걸기 위해 동전을 바꾸려고 카운터 직원에게 부탁했으나 귀찮다는 말투로 푸대접을 받았다. 그는 잠시후 다시 돌아가 시험삼아 영어로 부탁하니까 그 직원은 대번에 달라져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그는「이같은 이상한 체험을 겪은 다음부터는 더더욱 國學과 한국인으로서의 自尊意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萬桂淑 기자】



◇교환교수로 한국에 온 리처드·金。그는 『1년간 머무는동안 되도록 많이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며 한국을 다시 배우고싶다』고말한다. (24일상오 서울大교정에서)

油價體制 큰混亂예상

OPEC會議 單一化실패

產油國의 購買國확보 경쟁으로

【제네바23日AP=聯】제네바 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상회의가 油價單一化에 실패함에따라 油價는 앞으로 수개월간 하락세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서방석유전문가들이 23일 내다봤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油價단일화협상결렬로 이미 석유공급과잉때문에 석유판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OPEC회원국들이 석유구매국확보에 열을 올리게될것이라면서 이과정에서 일부 산유국들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유가 인하를 단행, OPEC 유가체제를 큰 혼란에 빠뜨릴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석유상은 22일 OPEC석유상회의가 유가단일화에 실패함에 따라 일부 석유수출국들이 구매국들에게 은밀히 유가인하를 제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이로인해 세계의 평균유가가 앞으로 수개월간 배럴당 34달러이하로 내려갈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이번 제네바 OPEC석유상회의에서 사우디가 강경태도를 견지한 이유가 ①리비아등 아랍강경국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②사우디의 安保에 긴요한 미국등 기타 선진국들과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③사우디자체의 투자와 개발계획에 차질을 일으키는 서방세계의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다.

카터、北京向發

【샌프란시스코24日AP=聯】카터前美대통령은 중공을방문, 중공지도자들과 고위회담을 갖기위해 23일 北京으로 떠났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부인 로잘린여사 아들 칩군및 딸 애미양등 가족과 함께 전세제트여객기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북쪽의 민간비행장에 잠시 기착했다가 北京으로 떠났다.

보이저2號 土星探索 개시

내일 下午1시50분 10만km最近接

17개衛星사진등 送信

「環의神秘」벗겨질 수도

【패사디나(美캘리포니아州) 24日UPI=聯】美國의 土星탐색 보이저(항해자)2號는 25일 하오9시50분(한국시간 26일 하오1시50분) 土星에 가장가까운 거리에 접근하여 신비에 싸인 土星표면의 자연현상을 밝혀줄것으로 기대되는 본격적인 土星탐색작업에 들어간다.

土星을 향해 항진중인 보이저2號는 이미 土星주변의 자연현상과 土星의 몇몇위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보여주는 사진을 지상의 과학자들에게 송신했으며 25일 土星표면으로부터 10만1천km 떨어진 최근접 거리에서 土星표면에 대한 보다 선명한 사진촬영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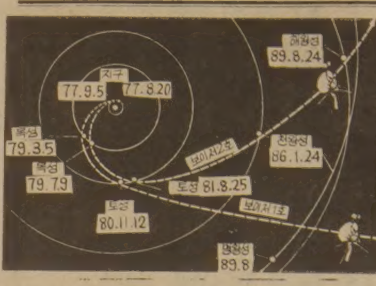
보이저2號가 土星과 랑데부를 갖는 이 10만1천km의 최근접거리는 9개월전 보이저1號가 土星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던 거리보다 2만3천km더 가까운것인데 과학자들은 보이저2號가 최근접 거리에서 土星주변을 찍어송신한 사진들이 土星의 17개 위성중의 하나인 이아피터스의 한쪽표면이 다른쪽표면보다 6배나 더검게 나타난현상을 규명해주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이저2號는 이미 지난주말부터 土星과 土星을 둘러싸고 있는 17개위성에 관한 사진을 찍고 地上송신을 시작했는데 과학자들은 특히土星표면구름속에 바람개비같은 폭풍우현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이사진을 공개한바있다.

이아피터스 토성위성의 표면명암차이에 관한 한가지이론은 이위성이 당초 얼음으로 덮여 있었으나 그후 토성의 위성인 피비로부터 바위와 먼지세례를 받아 일부가 이를 바위및먼지로 뒤덮여 있기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가지의 이론은 이아피터스의 어두운면이 위에덮인 얼음층이 벗겨져 속의 바위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보이저2號는 지난22일 또 갈릴레이시대부터 알려져온 土星둘레를 감싸고있는 3개의 주요環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B環의 연속사진을 13시간동안 찍어 송신했다.



◇보이저 1號및 2號의항진코스

土星표면에 바람개비 暴風

地球의 거대한 颱風비슷

17개위성중 9개에 가까이접근

【패사디나(캘리포니아州) 22日AP=聯】土星과의 오는 25일 역사적 랑데부를 위해 순항중인 미국의 우주탐색선 보이저2호는 이미 土星주변의 몇몇위성들의 자세한 사진과 더불어 土星표면 구름속에 바람개비같은 폭풍우사진을 보내왔다고 과학자들이 22일말했다.

보이저2호의 사진담당관 브래드퍼드·스미드씨는 이날 土星대기의 소용돌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土星사진을 공개했는데 나

•원형의 이구름덩이는 土星표면위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제트기류속에 갇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것 같이 보였다.

갈색 구름층을 바탕으로 푸른빛을 띤 이 소용돌이는 마치 지구의 거대한 태풍과 비슷했다.

보이저2호가 보내온 土星사진은 보이저1호가 지난해11월에 찍은 사진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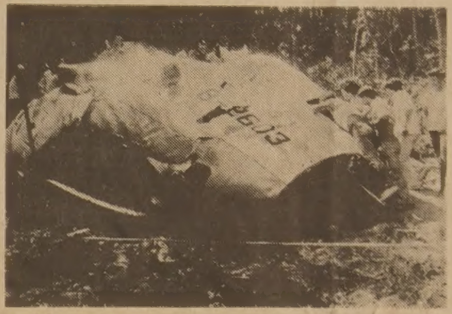
보이저2호의 25일 土星접근은 土星을 싸고 도는 17개의 위성중 9개와 가까이 접근, 자세한 모습을 보여줄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했다.

3國합동 國防委 설치

리비아·이디오피아·南예멘

【베이루트23日UPI=聯】리비아·이디오피아·南예멘등 親蘇아프리카3국은 점증하는 美국의 페르시아灣및 인도양주둔 美군사력에 대응, 3국간의 군사협력을 도모하기위해 3국합동국방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베이루트에서 발행되는 한 親리비아系주간지가 23일 보도했다.

알·무키프·알·아라비誌는 이러한 3국합동국방위설치결정이 지난주 아덴에서있은 3국 정상회담에서 내려진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국 정상들은 당시 3국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바있다.



◇臺灣여객기 慘事현장 승객과 승무원 1백10명을 태운채 공중폭발한 臺灣국내선 여객기 보잉737기의 참사사건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있으나 아직 생존자를 찾지못하고있다. 【臺北23日UPI=聯】

美-리비아空中戰 리비아 先制공격

가다피 시인

【런던24日UPI=聯】가다피리비아 대통령은 23일 지난주 지중해상공에서 발생한 美리비아 空中戰이 리비아機2대의 선제공격으로 유발됐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는 리비아 자나통신을인용, 24일 런던의 더·타임즈紙에 보도된 이디오피아에서의 회견을 통해 리비아機 2대가『일상적인 정찰비행』중 美F14기 1대와 조우, 美機에 대해 리비아영공침범사실을 경고했으나 F14기는 영공침범을 계속했다고 말하고 이에 리비아機 2대가 리비아의 영토및 영공방어를 위한 정찰의 기본의무에 따라 美F14기 1대를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蘇의 SS20配置 계속땐 나토 戰域核軍 보유해야"

세이송佛外相 核균형主張

【런던23日UPI=聯】클로드·세이송 프랑스외상은 23일 미테랑 대통령집권이후 지금까지 프랑스의 對蘇정책이 크게 변하지않았다고 말하고 나토는 소련과 대등한 핵군사력을 유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송외상은 이날 영국TV와의 회견에서 미테랑 사회당정권의 對外정책에 언급, 東西핵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위해 소련이 전 유럽대륙을 사정권에 둘수있는 SS20미사일의 실전배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나토가 戰域核軍을 보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세이송외상은 미테랑정부가 지스카르 前대통령이 택했던것과 같은 對蘇관계를 유지할것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蘇軍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주둔하는한 양국관계의 더이상의 개선은 기대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蘇추종국 挑發不容

헤이그 경고

【워싱턴23日AP=聯】헤이그美국무장관은 23일『미국은 소련및 지난주 지중해상공에서 미국에 도전한 리비아와 같은 소련추종국들의 불법적 도발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메아리

코리아 타운

[illegible] 로스앤젤레스시당국은 지난 17일 우리 교포들이 주로 사는 동시내 올림픽가와 보몬트가 두곳에「코리아·타운」이라는 영어표지판을 공식적으로 부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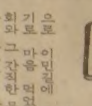
이는 현재 25만명에 이르는 로스앤젤레스 거주 교포들의 오랜 숙원이 풀린 것이자 미국사회에서 우리교포의 위치를 돋보이게하는 일이라하겠다.

이처럼 미국의 지방행정당국이 공식적으로「코리아·타운」의 표지를 붙여 우리 교포의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세월이 필요하였다.

한미수교의 역사는 내년으로 1백년을 맞고 이민의 역사도 80년이 되는 마당에 50만 미국교포가운데 그 절반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우리 교포의 터전으로 공인되기 까지의 오랜 경과는 에누리 없이 피와 땀이 얼룩진 것이라 하겠다.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코리아·타운」이 한국도시의 재판인것에 놀랄것이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한마디의 영어를 모르고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정도이다.

이와같은 풍토는 지난날의 이른바 미국속의「차이나·타운」이 그러했듯이 개방적인 것이 지배하는 미국인사회에 비겨 너무나 전통적이고 폐쇄적인것임을 쉽게 직감할수 있다.



하기야 한국과 미국의 이질적인 문화가 맞부딪치게 되는데서 오는 어려움과 이민생활이 주는 불안이나 고독은 자연 우리 교포들 끼리끼리만 어울려살게하는 절실한 연유이겠으나 이같은 생활방식속에서도 현지에서의 적응성을 보다 넓혀 더 전진하는것이 재미교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모든 생활의 터전을 청산하고 정연히 이국, 이민족 땅으로 이민길에 올라서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기로 마음 먹었던 의욕을 미국인과 미국사회와 그 자잘한 문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쏟는다면 그 개인과 교포사회의 충실은 말할것 없고 조국을 위한 기여의 길도 되는것이다.

그런뜻에서 한미수교 1백년만의 코리아·타운이 미국사회에 적응하고 모국에 크게 기여하는 활력에 넘친 교포들의 발판으로 되기를 거듭 바라마지않는다.

世界의 社說

韓日外相會談에관한 日3大紙의論評

前途다난한 韓日관계 구축

●요미우리(讀賣) 신문·24日字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는 비단벌레처럼 얼버무린 표현으로 그쳤고 경제협력차관요청에 대해서는 계속협의로 끝났다.

이번회담에서 盧장관이 안보라는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요청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않은것은 현명했다. 안전보장과 연결한 경제협력을 거부한 일본측에 정면으로 맞부딪치면 회담은 결렬됐을 것이다.

그러나 盧장관은 GNP6%를 국방비에 쓰고있는 한국의 방위노력에 이해를구하고 對日무역적자가 2백억달러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총60억달러의 정부차관을 정식요청했다。

소노다 외상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인정하고 한국의 방위노력을 십분이해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나 경제협력은 어디까지나 安保와 분리해서 民生안정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는점을 주장했다。

소노다외상은 한국이 우호국이며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經協요청은 성의를 갖고 임하겠다고 약속했고 盧장관도 일본측 입장을 신뢰、성의와 신뢰관계에 서서 계속 협의할것을 다짐했다。

經濟·安保 엇갈린 韓日회담

●아사히(朝日) 신문·24日字

韓日외상회담은 긴눈으로본 새로운 韓日관계의 再定立이라는면과 당면한 안전보장·경제협력이란 두과제가 주요문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한반도에대한 현상인식과 장래전망에 관해 견해차를 드러냈고 경제협력은 계속 협의하는 형식으로 끝났다.

대화가 일치하지 않았다해서 실망한다든지 격분해서는 안된다. 韓日외상회담을 실마리로하여 앞으로 정치, 경제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나가야한다.

인식의 문제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따라 다를수밖에 없다. 인식의 相違點을 명확히 한뒤에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면 된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쌍방이 각기 해석을 달리 할수있는 여지와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의 교섭과정에서 경제협력의 성격에 관해 論難이 있을것이 염려된다. 對韓경제협력과 병행해서 일본은 무역불균형을 시정해야한다。

파고높은 韓日 새시대개막

●마이니찌(每日) 신문·24日字

한국은 태평양에 있어서 美日방위의 방파제라는 점과 방위代役이라는 견지에서 직접 經協을 요청함을 피했다。

소노다외상이 한국의 방위노력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위분담적 발상에 의한 經協은 할수없다고 거부한 것은 당연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점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응한다면 이는 거꾸로 南北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한국이 주장하는 무역불균형의 시정은 장기적 시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生糸등 수입제한은 개선되어야한다。

결국 經協차관은 앞으로 실무자회담이나 정기각료회의에서 심의하고 협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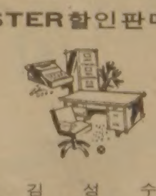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 각종 CABINET책상, 타자기,
• 각종 종이 테이프
• 사무용 학생용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532-0111, 259-5820(R)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도식 중국음식 생일, 가요에 남아서 원하는 대로 책임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 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 LEASING
• SALES
• SERVICE
• PARTS
• BODYSHOP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리 다가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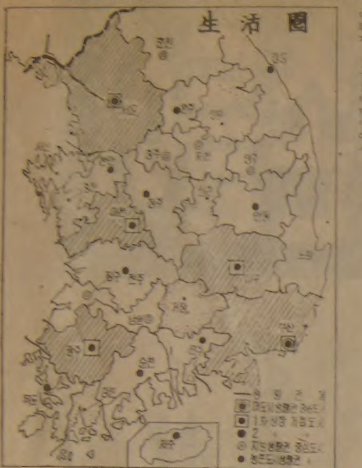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416) 222-9480

2次國土綜合개발 그內容

서기2001年 향한 基本青寫眞

전국 生活환경 同一하게



국토개발계획은 한정된 국토에 날로 증가하는 인구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국민모두가 복지생활을 누리기위해 추진되는것이다. 그러나 워낙 방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므로 어느나라나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첫단계는 기존 거점도시의 개발, 다음단계로 새로운 지방거점도시의 개발, 마지막 단계는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통해 전국을 균형있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민생활수준을 고르게 유도하게된다.

도시중심의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소득수준의 향상에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인구증가로 인한 전국토의 도시화 추세를 감안해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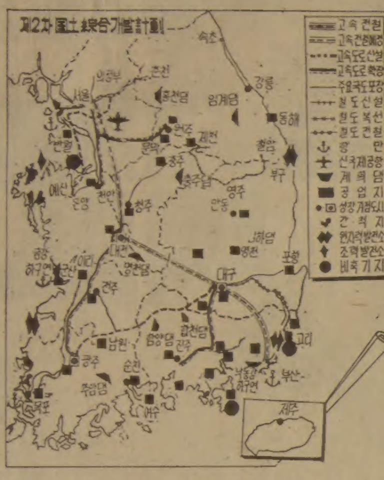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사업은 지난 72년부터 제1차10개년계획을 착수, 입지조건이 유리한곳에 자리잡은 기존성장도시 — 예컨대 서울·釜山등을 집중개발해왔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10개년계획은 두번째 단계인 지방도시의 광역개발사업이다.

지방特性살려 40개 大單位사업

教育·文化·취업·旅券업무分散도

소요財源17兆確保는未知數



部門別 주요사업

大田~清州 기계·光州~木浦식품都市로

仁川~溫陽등 4개 2차線高速道 건설

農村人口 감소추세여전 營農기계화등대비해야

【朴仁淳기자】

나의 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㉙

美 여러大學의 恩師들

프린스턴선 李박사친구 두教授 親交

콜럼비아大 하이드博士 뚜렷한 個性

미국에 있을 당시엔 대학을 많이 거친 만큼 스승도 많았다. 그중 인상이 깊었던 恩師로는 李承晩박사가 소개장을 써주었던 프린스턴대학시절의 두교수가 먼저 생각난다.

◇美國에서 여러대학에 유학하는동안 國際法과 外交學의 세계적인학자들의 薰陶를받았다. (사진은 콜럼비아대학)

주간女性

구독신청은 533-2361

宗教

소식

최대立佛像 봉안

국내 최대의 석가모니 立佛像이 경기도 楊州郡 白石面靈場里에 있는 普光寺에조성, 오는30일상오11시 奉安式이 거행된다. 이大佛의 기단석실에는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으며 국난극복의 의지를 담은 발원문이 각문 안치돼있다.

2백주년 준비모임

한국천주교회 창립 2백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24일하오2시 CCK내 2백주년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그동안 각교구및 교회기관 단체로부터 접수된기념회의 의제들을 검토선정하게된다.

솔뫼聖域化 기공

솔뫼(松山) 성역화사업기공식이 21일상오11시 충남唐津郡牛江面松山里산45 고 金大建신부(1821~1846) 의출생지에서 천주교 大田교구장 黃晈性주교와 李唐完충남지사를 비롯, 각계인사·천주교신도등 1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천주교 大田교구장 黃晈性주교의 집전으로 베풀어진 이날 기공식에서 大田교구 金榮煥부주교는 식사를 통해 『솔뫼마을은 한국최초의 신부이자 처음으로 문룡을 받아들인 故 金大建신부의 탄생지이며 천주교의 첫 발상지이기때문에 그의위업을 기리기위하는 뜻에서최초의 성지로 성역화하게되는 것』이라고말하고 『7만5천 大田교구신도와 각계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馬三樂씨 史料기증

정년으로 모국에 돌아가는 미국연합장로회소속 馬三樂박사가 2대에 걸쳐 봉사해온 장로회신학대학에 한국초대교회의 귀중한 자료 1백여점을 기증했다.

長神大에서 벌이고있는 자료유품 수집운동에 호응하여 기증한 물품가운데는 1925년 성서공회가 발행한 게일선교사 번역의 마태복음필사원본이 포함돼있다.

성역사업

성역사업은 지난77년 솔뫼마을에 세워진 金大建신부의 동상을 중심으로한 9천여평의 대지에 치상3층지하1층 연건평9백평규모의 「피정의 집」을 건립하게된다.

「하나의敎會」 祈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금년도 교회연합주일인 오는9월6일을 맞아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한가지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연합운동을 위해 헌금하는주일로 지켜줄것을 당부했다. KNCC는금년의주제를 「하나의교회, 하나의희망」으로 정하고특히 재정자립의 기틀마련을 위해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고있다.

張吉山

黃晳暎 作 崔然石 畵 (1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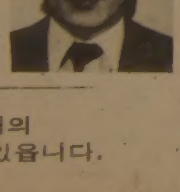
第四部 彌勒逆謀 第一章 (96)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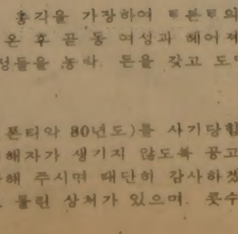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사람을 찾습니다



본 명 : 이 시 교 (또는 이삼구)

나 이 : 43세

이 자는 한국에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을 가장하여 토론토의 한인여성과 결혼, 이곳 영주권을 획득하고 캐나다에 온 후 곧 동 여성과 헤어져 미국 뉴욕등지와 토론토의 수많은 남편 없는 이혼여성들을 농락, 돈을 갖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었음.

본인은 이 자에게 1만달러 이상의 돈과 새 자동차(폰티악 80년도)를 사기당함으로써 이 자를 만천하에 고발하여,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하니, 혹시 이 자의 거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자의 팔뚝에는 한국에서 여자에게 입으로 물린 상처가 있으며, 릇수염을 기르고 있음.

연락처 : 291-4547 미세스 윤

제1회 바시티배 쟁탈 야구대회

일 시 : 9월5일 오전 9시

장 소 : 센테니얼 팍 야구장

신청장소 : ⊙바시티 운동구점(967-7304) ⊙박재선씨(755-6434) ⊙조용덕씨(423-3251)

참 가 비 : $50 (팀당)

주장회의날자 : 8월28일(금)하오8시 (바시티 운동구점)

주최 : 바시티 운동구점(이건영)

후원 : 민중신문사·코리아 저널·대한체육회 쌍방울 메리야스·미도파 선물센타 SUN-LIFE (윤호영) 국제상사

● 심판위원 : 박재선, 박샌디, 김경서, 문영환, 김문랑, 조용덕, 김계일, 천경호, 박홍일, 박세영, 장인택, 윤호영, 최이락, 조동식, 정세용, 김은하

金健友(善隣) 강속구에 北一 손들어

산발 4安打만 허용
朴魯俊등 善隣打線 위력

鳳凰大旗 고교野球

善隣商-北一高 5-0

청룡기 우승팀 慶北이냐, 무관의 강자 善隣商이냐。제11회 봉황대기의 패권을 놓고 慶北高와 善隣商高가 오늘(25일) 하오4시 금년시즌 두번째 결승대결을 벌인다。24일 서울운동장서 열린 대회18일째 준결승전에서 善隣商은 우완 金健友의 강속구 스피드 볼로 2연패를 노리던 天安北一高를 산발 4안타 2四死球, 7三振으로 완봉하고 朴魯俊의 5타수 4안타등 10안타를 날리며 5-0으로 완승, 금년 3번째로 전국대회결승에 진출했다。慶北高는 1년생 우완 文炳權과 좌완 成埈의 계투로 釜山商高타봉을 3안타로 압도, 7회초 타자일순하며 집중6안타를 터뜨려 5득점 6-0으로 낙승했다。慶北高는 청룡기결승서 善隣商高를 6-5로 꺾고 우승했으며 봉황대기 1、5회 대회를 석권했다。

善隣商高는 23일 준준결승전에서 3회말 3번 朴魯俊의 2타점 동점 3루타, 4번 金健友의 결승솔로·호머, 6번 李暾宰의 2점호머등으로 大邱高에 6-2로 역전승했으며, 北一高는 3번 金相國의 2회말3점, 4회말 솔로의 연타석홈런과 廉相和의 2회말 2점호머등으로 全州高를 11-7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 이날 준결승 대결을 벌였다。

善隣商-北一高

안타수 10-4, 투타에서 善隣의 일방 우세였다。2연패를 꿈꾸던 北一은 善隣선발투완 金健友의 스피드에 눌려 4회까지 무안타, 9회동안 산발 4안타로 힘을 쓰지못했다。善隣은 4회초 선두 3번 朴魯俊의 우중월 3루타와 1사후 5번 趙永一의 중희비로 1점의 선제 리드를 잡은후、6회초 집중3안타로 3점을 추가, 승리를 굳혔다。6회초 1사후 3번 朴魯俊이 3타석연속 안타를 치고나가 北一선발 安聖洙의 폭투로 3進、4번 金健友가 포볼을 골라 1사1·3루의 찬스를 만들자 5번 趙永一이 우중월적시 2루타를 터뜨렸다。3루주자 朴에이어 1루의 金健友까지 홈으로 뛰어들자 중계된볼에 태그·아웃당했으나 6번 李暾宰가 경원포볼로 나가 2사 1、2루의 계속된 찬스에서 7번 趙弘紀가 2타점우월3루타를 날려 4-0의 일방 리드를 잡았다。北一의 安聖洙는 전날 홈런을 날렸던 강타자 李暾宰를 걸러보내고 7번타자와 승부를하다 결정타를 얻어맞았으며 北一로서는 더이상 버틸힘을 찾을수 없었다。6회까지 안타수 8-1로 善隣우세。善隣은 거의 전원이 라이너로 뻗어가는 날카로운 타구를보인 반면 北一은 金健友의 스피드에 눌려 安聖洙가 단한번 우익수앞으로 큰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안타를 기록했다。善隣은 7회초 선두1번 金雄大가 중전안타로나가 보내기번트와 朴魯俊의 적시타、적실로 홈인 1점을 추가했다。北一의 5번 尹洪植이 7회말 선두로나와 두번째 안타를 날렸으나 후속병살타로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홈인失敗 善隣과 北一의 준결승전, 6회초 1사후 주자 1、3루에두고 善隣5번 趙永一이 우전안타를 날리자 1루주자 金健友가 무리하게 홈으로 질주, 아웃당하고있다。

慶北、7회 5점 빼내

文炳權·成埈계투 釜山商완봉 6-0

慶北高-釜山商

慶北의 1년생 文炳權의 언더드로를 공략 못해 철벽에 막힌 釜山商은 6회까지 좌완 에이스 李弦澤의 역투로 안타수 3-3의 선전을 벌였으나 7회초 慶北의 소나기 안타에 무릎을 꿇었다。

慶北은 결승대결을 의식해서 인지 왼손에이스 成埈을 쉬게하고 文炳權을 선발로 등판시켜 6회까지 선방했다。그러나 慶北타선 역시 李弦澤의 변화에 눌려 빛을 보이지 못했다。

慶北은 4회초 1死후 포볼로 나간 5번 曺光德이 적실과 7번 金大植의 중전적시타로 간신히 선제점을 올렸다。

慶北의 타선은 7회초 일시에 폭발, 대량5점을 빼어내 승부를 결정지었다。선두 3번 盧國成이 중전안타로나간후 1번 柳仲逸、2번 權宅宰가 연달아 2、3루 앞으로 절묘한 번트로 살아 無死 만루의 찬스를 만들었다。3번 洪淳浩는 찬스를 놓치지않고 주자일소 좌월 3타점 2루타를 날렸으며 후 5번 曺光德의 중전안타、1死후 6번 金允榮의 중월2루타가 연달아 폭발, 4점을 얻었으며 7번 金大植이 스퀴즈 번트로 또 한점을 추가했다。慶北의 좌완에이스 成埈은 6회 1死후 구원등판, 釜山商의 반격을 완전 봉쇄했다。

◇제18일준결승

선린상	000	103	100	5
북일고	000	000	000	0
경북고	000	100	500	6
부산상	000	000	000	0

4強개인戰績

부산상	타수	득점	안타	타점
姜秀京(中)	4	0	0	0
宋沅佁(右)	4	0	1	0
丁海德(捕)	4	0	0	0
李弦澤(投)左	4	0	1	0
林相根(二)	1	0	1	0
鄭翔立(左)投	3	0	0	0
車正佳(一)	3	0	0	0
洪 龍(遊)	3	0	0	0
鄭志洋(三)	2	0	0	0
犧三四盜殘失 1 4 2 0 4 1	28	0	3	0

경북고	타수	득점	안타	타점
柳仲逸(遊)	5	1	1	0
權宅宰(一)	3	1	1	0
洪淳浩(三)	5	1	2	3
崔武永(中)	4	0	0	0
曺光德(左)	1	2	1	1
張性寬(左)	1	0	0	0
申成哲(捕)	1	0	0	0
金允榮(捕)	3	0	1	0
金大植(右)	2	0	1	2
具 潤 打左	1	0	1	0
文炳權(投)	3	0	1	0
成 埈 投	2	0	0	0
盧國成(二)	4	1	1	0
犧三四盜殘失 2 2 7 2 11 0	35	6	10	6

投手成績	回	打者	安打	三振	四死	失點	自責
文炳權	5 1/3	20	3	1	1	0	0
成 埈	3 2/3	11	0	1	1	0	0
李弦澤	6 1/3	32	8	1	5	5	6
鄭翔立	2 2/3	12	2	1	2	0	0

선린상	타수	득점	안타	타점
金雄大(左)	5	1	1	0
金暎演(遊)	4	0	0	0
朴魯俊(右)	5	2	4	0
金健友(投)	3	0	0	0
趙永一(一)	3	1	1	2
李暾宰(中)	3	1	1	0
趙弘紀(捕)	4	0	3	2
金明將(二)	2	0	0	0
朴志浩(三)	3	0	0	0
犧三四盜殘失 3 3 4 0 7 1	32	5	10	4

북일고	타수	득점	안타	타점
曺興武(遊)	4	0	1	0
趙弘濟(右)	4	0	0	0
金松濟(捕)	4	0	1	0
李鍾吳(中)投	4	0	0	0
尹洪植(左)	3	0	1	0
崔吉明(三)	4	0	0	0
金賢澤(一)	2	0	0	0
安聖洙(投)	1	0	1	0
趙光衡(打)	1	0	0	0
金賢泰(中)	0	0	0	0
廉相和(二)	3	0	0	0
犧三四盜殘失 1 7 2 1 6 1	30	0	4	0

投手成績	回	打者	安打	三振	四死	失點	自責
金健友	9	33	4	7	2	0	0
安聖洙	8	35	10	2	3	5	4
李鍾吳	1	4	0	1	1	0	0

홈런 6개 亂飛

일요일8強戰 스탠드熱狂

4강진출을 가리는 휴일의 2경기는 모두 홈런으로 승부를 가리는 호쾌한 타격전을 벌여 3만관중을 열광케 했다。

2회초 大邱에 선제2점을 허락한 善隣商은 3회말 1死후 1번 金雄大의 우전안타로 포문을 열고 2번 金國鎭의 중전안타、3번 朴魯俊의 주자일소 2타점 동점3루타로 2-2의 동점을 만들었다。異本浩감독은 4번 金健友에게 스퀴즈·번트를 지시, 실패로 주자 朴을 협살당하게 한후 金健友가 결승 솔로 홈런을 치는 엉뚱한 작전을 폈으나 5번 趙永一의 중전안타로 계속된 찬스에서 6번 李暾宰가 승리를 굳히는 2점호머를 때려 大邱선발 李成根을 녁아웃시켰다。

2회초 집중3안타로 善隣商선발 金健友를 다운시켰던 大邱는 선제 2득점후 1死1·3루의 계속된 찬스에서 2번 林淳太의 라이너타구가 병살을 초래, 초반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北一은 만만찮은 적수 全州를 초반 홈런 포격으로 무너뜨렸다。2회초 全州의 朴憲約에게 솔로·호머를 얻어맞은 北一은 2회말 廉相和의 2점、金相國의 3점호머에 이어 4회말 金相國의 연타석 솔로호머로 응사, 홈런만으로 6점을 거둬들였다。

全州는 8회초 집중3안타와 敵失로 4득점, 무서운반격을 폈으나 초반의 대량 실점을 만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徽文、龍山대파… 異變

高校농구 松都高도 培材꺾어 2승

84-64

제17회 쌍룡기쟁탈 남녀고교농구 대회 3일째 경기가 24일 장충체육관서 속행, 남고B조의 徽文高는 강호龍山高를 84-64로 대파, 이변을 일으켰다。A조서 仁川松都는 培材高를 76-65로 제압, 2승으로 선두에 나섰으며 여자B조서 淸州女商은 金賢淑의 골밑슛으로 晋州三賢의 추격을 64-63으로 따돌렸다。

◇제3일 전적
▲남고A조
송도고 76 (42-43 34-22) 65 배재고
(2승) (2패)
▲동B조
휘문고 84 (39-36 45-28) 64 용산고
(1승1패) (1승1패)
▲여고A조
성덕여상 66 (30-26 36-22) 48 효성여고
(2승) (2패)
▲동B조
청주여상 64 (28-33 36-30) 63 진주삼현
(1승1패) (1패)

◇제2일전적
▲남고A조
광신상 76-61 배재고
(1승) (1패)
▲동C조
광주고 66-60 휘문고
(1승) (1패)
경북고 80-66 전북사대부
(1승) (1패)
▲여고A조
덕성여고 68-66 대구효성
(1승) (1패)
전북체고 63-53 숙명여고
(1승) (2패)
▲동D조
수원여고 60-52 광주수피아
(1승) (2패)

韓國、2차전 完勝
韓日高校 배드민턴

23일 YMCA 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韓日고교 배드민턴친선경기대회 최종2차전에서 韓國남녀고교선발팀은 日本선발을 각각 4대1、5대0으로 제압했다。

◇제2차전
▲남고부 韓國선발 4-1 日本선발
▲여고부 韓國선발 5-0 日本선발

田昌大 金春浩선두
테니스常備軍 최종평가전

明知大의 田昌大는 24일 장충코트서 벌어진 테니스국가상비군 최종평가전 5일째 경기서 金奉洙(울산공대)에 3-1로 역전승, 3승1패를 기록했다。이날 金春浩(명지대)도 金榮煥(대우중공업)을 3-0으로 제압, 3승1패로 선두그룹에 나섰다。

◇제5일전적
田昌大 3 (4-6 6-1 6-2 6-4) 1 金奉洙
(3승1패) (1승4패)
金春浩 3 (6-0 6-0 6-3) 0 金榮煥
(3승1패) (3승2패)
◇제4일전적(23일)
田昌大 3-1 金榮煥
李우룡 3-0 金奉洙
金春浩 3-0 周昌男

한국男女 우승
太平洋주니어배구

【힐로(하와이)=聯合】한국주니어남녀배구팀은 23일하오(한국시간)이곳 종합체육관에서 막을내린 제8회 太平洋연안청소년배구대회결승전서 日本과 멕시코를 각각 3-0으로 완파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결승
한국 3 (15-7 15-6 15-8) 0 日本
▲남자결승
한국 3 (15-5 15-7 15-5) 0 멕시코
▲동3、4위전
美國 3-0 힐로
◇개인상(남·여)
▲최우수선수=文湧冠(한국)·아나·이사벨(멕시코)
▲공격상=李鍾敬·李恩敬(이상한국)
▲세터상=오사나이(日本)·金允子(한국)

다이빙 코치 세미·李내한

세계적인 다이빙 선수이자 코치인 韓國系美國人 세미李씨가 23일하오 金浦공항착 韓國에왔다。東洋人으론 최초로 올림픽 하이다이빙 부문에서 2연패를 차지한바있는 세미李씨는 9월초까지 韓國에 머무르는 동안 국내선수들을 지도하고 유망한 몇몇선수들을골라 美國에 데리고가 직접 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내가 본 鳳凰大旗의 向方

善隣商

朴魯俊 金健友 投打 무적
內野陣수비에 覇權 달려

韓乙龍【建國大감독】

善隣商高는 다른 팀에비해 기량면에서 한발 앞서있다。朴魯俊、金健友가 중심이된 타력은 다른팀과비교가 안될정도로 막강하다。또한 朴과 金이 계투하는 투수진도 가히 초고교급이라 할수있다。

내야수비가 다소 불안한게 흠이다。그러나 투수의 능력에 따라 내야수비도좌·우되는 만큼 朴과 金이 이 약점을 잘 커버할수 있으리라 본다。善隣은 올해결승서 두번씩이나 패배、벤치가 소심해져 있다。감독이 소심해지면 철저한정석 플레이로 경기를 이끌게되므로 이번 봉황기 결승서는 이런 점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할것 같다。善隣은 청룡기 결승서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어 慶北으로서는 쉽사리 무너뜨릴수 없을것이다。

慶北은 포수가 딴 포지션에 비해 다소 취약점을 갖고있다。善隣투수진을 공략키위해서는 가능한한 풀·스윙을 피하고 라이트 쪽으로 밀어치는 타법으로 맞서는게 유리할것 같다。구에 다소 약한것 같다。

善隣		慶北
5	게임	4
26	득점	25
4	실점	2
150	타수	121
47	안타	39
.313	타율	.322
24	타점	23
2	홈런	3
3	도루	5
8	실책	2
0·83	방어율	0·28

慶北高

傳統의 守備力 완벽한편
끈질긴 승부근성이 長點

河日成【KBS 해설위원】

慶北高는 무척 끈질긴팀이다。끈질기다는것은 선수들의 승부근성이 강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전통에서 우러나는 것이다。慶北은 국내고교팀가운데서 짜임새가 가장 좋으며 탄탄한 수비력을 갖고있다。웬만한 공격쯤은 호수비로 분쇄시킬수있는 저력이있다。慶北의 공격력은 수비만큼 뛰어나지는못하지만 결코 약한것은 아니다。베이스·런닝、기동력등 주자들의 플레이는 善隣에 비해 앞서있는것 같다。慶北의 가장큰 약점은 成埈이 지치거나 연타 당할 경우 계투해줄 투수가없는것이다。成이 5、6회에 물러난다면 과연 누가 善隣타봉을 막을수있을지가 문제다。또한 포수 申成哲이 어깨고장을 일으켜 수비서는물론이고 타격에서도 신통치 못한 성적을 보이고있는게 큰 문제로 부각될수있다。그러나 善隣을 꺾었다는것이 慶北으로서는 큰 힘이다。청룡기 결승서 慶北이 善隣에 6-5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이번결승서도 이와 같은 의외성이 재현될는지는 미지수다。

啓聖고교 覇權
가을철 中高유도

제9회 추계전국중·고유도연맹전이 23일 잠실학생체육관서 폐막, 고등부 개인전에서는 엑스트러 라이트급의 박영선(圓光高) 하프라이트급의 채병성(全南體高)등이 각각 우승했다。

◇최종일전적
◇고등부 개인전 체급별우승자
▲엑스트러라이트급=박영선(圓光高) ▲하프라이트급=채병성(全南體高) ▲라이트급=김종영(啓聖高) ▲하프미들급=문정국(啓聖高) ▲미들급=장해창(永信高) ▲하프헤비급=김두환(청석고) ▲헤비급=박희승(대성고)

加、15種目석권
3개국J陸上

【長野(日本)23日聯=聯合】캐나다는 23일 나가노(長野)에서 폐막된 캐나다·中共·日本3개국 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에서 30개종목중 15개 종목을 석권, 종합득점 75·15로 우승을 차지했다。2일간열린 이대회에서 日本은 62·5로 2위、中共은 52로 3위를 차지했다。

在美 태권도師範 새마을硏修 받아

在美홍포사회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기위해 내한한 재미태권도사범 33명은 24일 상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金敬煥총장을 예방하고 미주지역 태권도사범 새마을 연수교육단 창단식에 참석했다。이들은 25일부터 29일까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국기원서 태권도 보수교육을 받게되며 31일 水原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에 입교한다。

오스틴 覇權 차지
加 오픈테니스폐막

【터론토23日(AP)=聯合】美國의 10代 테니스스타인 트레이시·오스틴은 23일 터론토에서 폐막된 총상금20만달러의 캐나다 오픈테니스선수권대회 여자단식결승에서 윔블던대회의 覇者인 크리스·에버트를 6-1、6-4로 제압하고 우승, 상금 3만4천달러를 차지했다。세계랭킹3위의 오스틴은 이날 승리로 지난77년이후 에버트와 가진 14차례의 대전에서 8승6패의 우세를 기록했다。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목돈 만드는 신용적금

공 고

증가일로에 있는 예금·적금및 대출업무처리를 위하여 **토요일**도 다음과 같이 **개점영업**하오니 더욱 애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에 공고하나이다

토요일 영업시간 : 상오11시부터 하오4시까지
평일영업시간 : 상오10시부터 하오6시까지
시작하는날 : 1981년 9월 5일부터

한인신용조합 전화: 533—9387, 9388
KOREAN TORONTO CREDIT UNION LTD.,
712 BLOOR ST. W. TORONTO, M6G 1L4

● 영업종목
신용대출 정기예금 신용적금 세무상담 보통예금 Business Loan
성장저축 어린이적금

● 정기예금은 년 **19.50%** 까지 이자를 드리고 있읍니다

목돈 꾸는 적금대출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총회 공고

금년도 본대학 동창회에서는 하기와 같이 회원친목을 위한 모임및 총회를 가지려고 하오니 동창 여러분께서는 부부동반 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9월5일(토) 정오12시
장 소 : 104 ALEX MUIR BLVD. 스카보로
점 심 : 동창회에서 준비
연락처 : 미세스 성(292—6430)
미세스 리(536—4250)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장

大田 聖實전문대 閉校

「賂物認可」 물의… 운영능력 없어

學生·교직원 他專門大에 轉學·전속

문교부는 학교설립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大田 聖實전문대학에 대해 24일자로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문교부는 지난해 8월1일 설립된 聖實전문대학이 설립 당시 인가조건을 이행치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적법하게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경영과 응용미술과 행정과 무역과 세무회계과는 大田실업전문대학에, 식품영양과 유아교육과는 大田보건전문대학에 학생과 교원을 각각 전학, 전속시키기로 했다.

학생의 전학 수속은 聖實전문대가 발부한 납입고지서를 갖고 大田실업전문대에 전학되는 학생은 한일은행 대전지점, 大田보건전문대에 전학되는 학생은 상업은행 大田지점에 등록금을 내면 된다고 문교부는 밝혔다.

聖實전문대학은 재단이사장 李福姬씨(40·여)가 학교법인으로서의 기본재산을 갖추지 않은채 문교부 교육국 전문대학행정과장 具丙林씨(48)에게 4백20만원의 뇌물을 주고 50여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것처럼 꾸며 내역서를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가 적발돼 이사장과 문교부직원 2명이 구속되는등 말썽을 빚었었다.

高여인 檢察送致 女甲富 피살사건

【속보=10억대 여갑부 尹景花씨(72) 일가족 집단피살사건수사본부는 24일 범인 高淑鍾씨(46)를 구속 1주일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22일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高씨가 범행당일 열쇠꾸러미와 패물등을 가져갔었다고 자백함에 따라 이를 보강증거로 채택, 현장검증조서와 함께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서울大 대학新聞 14週만에 復刊

서울大 대학신문이 휴간14주만인 24일 복간됐다.

지난5월18일자 1천1백11호를 마지막으로 휴간됐던 대학신문은 24일 2개면에 1천1백12호를 만들어 오랜만에 대학의 눈과 귀 노릇을 다하게 된것. 대학신문은 이와함께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는 사과문을 1면에 게재했다.

釜山 또 토막殺人

파도에 떠밀려와 發見

外港선박 搜査

【釜山=聯】부산바닷가에서 여섯토막난 남자시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하오4시30분께 부산 影島區瀛仙洞4가809 속칭 제2송도해안에서 수영을 하던 李모군(14)등 중학생4명이 여섯토막으로 잘린 남자시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李군등에 따르면 수영을 하고있는데 외항쪽에서 이상한 것이 밀려와 가보니 여섯토막난 시체가 1~2백m간격으로 파도에 떠밀려왔다는것.

이토막시체는 머리부분과 손발이 없었으며 심하게 부패돼 있었다.

경찰은 影島경찰서 瀛仙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 토막시체의 신원을 수배하는 한편 이날 부산근해의 풍향및 조류방향등으로 미뤄 토막시체가 외항쪽에서 밀려들어온 것으로보고 외항에 정박중인 선박에 대해 수사를펴고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古代로마의「야누스」像 新羅佛像에 영향끼쳐

文化財

78년 慶州 高仙寺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야누스적인 金銅雙身佛과 盈德의 石造雙身菩薩立像의 源流를 희랍내지 로마와 관련지을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돼 화제다. 국립경주박물관 姜友邦학예연구실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놓은 美術資料 28호에 발표한「雙身佛의 系譜와 象徵」에서『인도의 간다라지방에서 발생한 雙身佛은 희랍내지 로마의 영향아래 성립되었고 중앙아세아를 거쳐 통일신라에 까지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지적하고『로마제국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야누스형식의 雙身佛像의 전파경로는 통일신라문화의 국제성의 한편을 살필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78년 慶州 高仙寺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金銅雙身如來立像.

◇로마시대의 헤라클레스와 이피클레스 雙身像.

◇간다라 石造雙身佛菩薩像

국립경주박물관 姜友邦씨 「雙身佛의系譜와象徵」논문

불교세계와 접촉…인도서 雙身佛조형
東進과정서 점차 如來나 보살로定立
新羅문화의 國際性을 입증한 한斷面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雙身佛은 慶州의 金銅雙身如來立像과 盈德의 石造雙身菩薩立像뿐이다. 두佛像은 양식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된다.

姜씨는 아직 중국의 예는 찾지못했으나 문화요소가 복잡하게 혼합된 중앙아시아에서는 몇가지 예를 발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것이 간다라 石造佛菩薩雙身佛, 마투라 造影雙身供養像, 호탄의 寺址출토 青銅雙菩薩頭, 하라호자 幡畵雙身佛, 하라호토 塑造雙身如來立像등이다.

간다라 石造佛菩薩雙身佛은 신체는 하나이고 얼굴만 한면은 如來고 다른 한면은 菩薩이다. 이에비해 우리나라 것은 여래형식과 보살형식등 별개의 형상이 한쌍을 이루고있다.

마투라것은 佛이나 보살이 아니고 긴 꽃디발을 들고 있는 두 남자공양상이 背面을 맞대고 있다. 인도는 雙身佛의 始源이므로 중앙아시아나 신라보다는 결합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호탄의 雙身佛은 三山冠모양의 寶冠을 쓴 것으로 보아 보살임이 분명하다. 각각 독립적인 머리를 붙인 것이 아니라 두머리가 일체가 되도록 조각한 점이 특이하다.

하라호자의 幡畵雙身佛은 조각에서 회화로 이행하여가는 과정을 살펴볼수 있는 것으로 하나의 頭光을 두고 雙身佛을 겹쳐서 서로 거의 독립적으로 표현했다.

하라호토의 雙身佛은 하라호자의 幡畵雙身佛의 기본적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幡畵雙身佛이 하나의 頭光으로 일체임을 암시한데비해 하나의 大衣로 감싸 일체임을 시사했다.

이상 예를든 雙身佛이 발견된 지역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서북방에 이르는 불교문화의 동으로의 흐름을 연결시키는 곳이다.

이런점을 연관시켜볼때 우리는 두가지 예에 불과하나 雙身佛이 뚜렷한 한 형식으로 발전하고 확산해왔음을 확인할수있어 흥미로운 일이다.

인도의 간다라불상이 그리스·로마미술의 영향아래 성립되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 발생설에 대해서는 그리스영향설과 로마영향설 두가지가 있으나 雙身像에 대한 신화는 그리스·로마 여러곳에서 보인다. 그러나 작품으로는 그리스것은 아직 없고 로마것은 화폐나 돌조각등 여러가지가 있다.

불교조각의 雙身佛은 로마의神 야누스에 기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雙身조각은 Janiform이라 쓰는데 이것은 Janus와 Form의 합성어다.

야누스는 원래 태양신이나 그 職分은 여러가지다. 대표적인것이 모든 문을 지켜주는 것이다. 얼굴이 둘달렸는데 이것은 사삿집의 안팎과 성문의 출입구양쪽을 살펴보기위한 것이다. 守門神, 太陽神외에도 항해신등 복합적인 神格을 지닌 것이 야누스인데 이러한 국가 수호신인 야누스가 불교세계와 교섭을 가져 인도에서 雙身佛이 성립되었다고 보는것은 한번쯤 생각할 가치가 있을법하다.

雙體형식의 모티브는 고대신상의 일반적 현상으로 보편성을 띠고있다. 쌍둥이 영웅 헤라클레스와 이피클레스는 雙體兒가 인도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며 병자나 빈자에게 구원자로 나타나는 신으로 떠받들어지는것과 같은 신앙내용을 가지고 있다.

雙身像은 야누스처럼 같은 형상이 결합된것과 헤라클레스와 이피클레스, 디오스크로이형제처럼 서로 다른 형상이 결합되어 있는것 두가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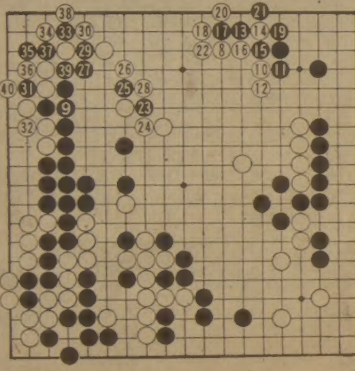
이 두가지 造形과 신앙이 인도에 영향을 주어 인도의 불교신앙에 대응하는 인도나름의 여러造形이 성립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인도의 造形이 동진하는 과정에서 점차 동일한 如來나 보살로 정립되어 통일신라에까지 그 양상이 확산되어 온 것이다.

雙身像에 대한 동서양에서의 의미를 결론짓기는 어렵다. 유럽에서는 수호신, 구원신등 복합적 신앙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인도에 영향을 주어 雙身佛및 供養雙身像이 나오게 한듯 하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第6譜 108~141 (각 5시간, 덤 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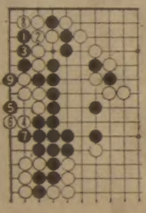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動



좌변일대에서 포도송이가된 黑대마를 위협하면서 白8까지로 상변에 이상적진용을 형성한 徐6단은 지극히 유망한 국세에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姜4단은 추호도 초조의빛을 보이지않으면서 시간을 충분히 들인끝에 黑9로 파이어놓았다.

姜4단도 이제는 覇王戰도전자의 경험을쌓아 전처럼 조급하게 굴지않게 되었다. 커가는 과정에서는 큰승부의 한판한판이 더없는 밑거름이다. 무엇보다 침착한 마음가짐이 생긴것이다.

白 32실책으로 역전



黑9만해도 자체보강과 아울러장차 黑123이하를 노리고있다. 徐6단은 우선 白10이하22까지 자신만만하게 상변을 확보하고 여전한우세.

드디어 黑123으로 예리하게 白집을 깨려하여 이하黑31까지 좌상귀에 파고들었을때 白32는 단2분만에 떨어버린 이수가 커다란 실책이었다. 도중 白20·24등 끝내기에 불과한수도 좀 의문이지만 그것보다 白32는 36쪽으로 잡아두어야 하는것을 徐6단은 黑에32자리를 당하여 잡히지 않으려고만 생각한 모양이다. 순간 黑35의 급소일격을 당하여 白귀가 파괴되어서는 일순에역전이다. 비록패는났지만 패감은 黑이많다. 수순중 白36을 참고도의 白2는 이하 黑9로 白이망해버리니 어불성설. 41··· 33 【一凡】

古美術會 창립기념所藏展

百50點출품, 30일까지 百想기념관

美術

한국 古美術會(회장金澈鎬)창립기념회원소장전이 30일까지 安國洞네거리 百想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다.

明星그룹과 한국문화재보호협회후원으로 열리는 이번창립기념 소장전에는 회장 金澈鎬씨를 비롯, 金文起, 金榮胤, 金貞武, 洪舜基, 李元基, 趙瑛洵, 白起大씨등 회원들의 소장품 1백50점이 출품됐다. 古美術會는 이번 창립소장전시를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보호의식을 적극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年代가 고증되지않은 陶製人頭像。(한국고미술회창립기념전에서)

東·西洋畵 여류작가展

오늘부터 신세계미술관

동서양화여류작가 초대전이 25일부터 30일까지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린다.

신세계미술관 초대로 열리는 이번여류초대전에는 우리나라동양화·서양화단의 신진·중견작가 20여명이 초대된다. 다음과 같다.

▲동양화=康南美 金雅英 文銀姬 元文子 吳浪子 柳敏子 李仁實 ▲서양화=金榮愛 金宗福 金昌媛 石蘭姬 宋璟 申令禮 申秀姬 沈竹子 李正枝 李惠種 全俊子 諸靜子 許桂

國際판화展서 수상 在美작가 黃圭伯씨

在美작가 黃圭伯씨(사진)가 유고슬라비아 류브리아나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있는 제14회 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유고슬라비아 과학예술원상을 수상했다.

류브리아나 판화비엔날레는 영국 동경판화비엔날레와 더불어 권위있는 國際展으로서 오는 9월15일까지 열린다.

◇고침=22일字 本紙 5면「南漢江 뱃길千里」기사중「燕山君을 몰아낸 仁祖反正」은「光海君」으로 바로잡습니다.

流星의 賦

<16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⑯

이영의 근본을 살펴보면 기왕 역모에 가담했던 왕족(王族)의 후손으로 될것인지 몰랐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근본을 따져 묻지 못하도록한 덕흥군의 분부가 있어 자연 그런 것은 관심 밖의 일로 되었다.

어느덧 하성군과 이영은 형(形)과 그림자처럼 되었다. 흡사 형영상반(形影相伴)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관계는 하성군이 임금이 된 후에도 다름이 없었다. 이영과 임금은 특별한 통로를 통해 서로를 만났다. 대강 이영은 밤중에 입궐해선 새벽에 퇴궐하곤 했다. 게다가 각별한 배려가 있기도 해서 조정의 신하들은 이영의 존재를 몰랐다. 측근에 선조는 엄한 함구령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만큼 이영은 임금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그 두뇌(頭腦)의 역할까지 했으나 임금이 묻지 않는데 말을 하는 법은 없었다. 임금도 실로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일이외의 일로써 이영에게 묻는 일이 없었고 함부로 일을 맡겨 그를 번거롭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임금이 은혜 과의 동태를 이영을 통하여 살피게 한것은 그 일을 아주 중하게 여긴 때문이었다.

이영의 정체를 알려고 이른바 율곡판협은 그이들의 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그 흔적조차 찾을수 없어 모두들 그런생각을 포기할수밖에 없었는데 조정으로 부터 괴상한 소문이 흘러 나왔다. 정여립(鄭汝立)이 율곡을 훼방했다는 얘기였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석이

「그럴리가 없다」

고했다.

「정여립이 선생님의 총애와 촉망을 한몸에 받았는데 그러한 그가 어찌 그와같은 언동을 하겠느냐. 필시 이것은 와전된 것일게다」

하고 모두들의 자중(自重)을 권했다. 아닌게 아니라 이이, 즉 율곡은 그가 살아있던 말년 「어떤 인재를 등용하여 국사를 맡김이 좋을까」 한 임금의 하문을 받고

「정여립이 쓸만 합니다」

하는 말을 올렸을뿐 아니라, 정여립의 학문과 인품에 대해서 극구 찬양한바가 있었던 것이다.

「만일 정여립이 선생님을 훼방한 일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권유가 말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여립은 마땅히 죽어야 할것이지만 그럴 리가 있겠소」

하고 하석은 그 일을 믿지 않았다.

「하여간 그 사실 여부를 빨리 알아 보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황해도 출신의 임경해가 한 말이었다.

「그 사실 여부는 내가 알아보지」

홍계남이 나섰다.

「어떻게 알아볼텐가」

권유가 물었다.

「계함선생을 찾아가 볼 참이다」

지남의 대답이었다. 계함선생이란 정철을 말한다.

「그러나 그건 안돼」

하고 하석이 말렸다. 율곡판협이 정철 또는 이이 생전에 친교가 있었던 사람을 만나면, 율곡판협의 행동으로 하여 누를 끼칠지 모르니 그분들을 만나는것은 삼가해야겠다는 하석의 신중론이었던 것이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오전10시30분~오후7시
714 BLOOR ST. W.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88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3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2:3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6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3202
순복음카나다	조아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맥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용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6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색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 3520. 630−8491

구 인

JEWELERY SALES PERSON
영어에 능통하고 용모단정하며
보석판매 경험자 우대함 카나다에서
고졸이상인자에 한함
☎: 979−3196 고 려 보 석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 다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925−0339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
MAIN & GERRARD ST. 지역
☎: 691−3363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921−0624.

도낫·캣쓸 : (도나스·샾)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풀타임. 파트타임)
398 CHURCH ST.(다운타운지역)
☎: 977−0303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977−9519

스토아 헬퍼구함 : FULL TIME
YONGE과 EGLINGTON지역
☎: 485−4353(아침9시∼정오 전화바람)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298−3383 마이크

도나스 SHOP에서 일할 캐시어 구함
남자분에 한함. 밤12시∼아침8시
☎: 531−2689 1468 QUEEN ST. W.

스토아 헬퍼구함 :
ALBION RD.
☎: 745−6330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491−1931

집에서 여자용 세타를 짤수 있는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음. 영어회화 가능한분
☎: 665−2265. 488−5170. 488−4498

가게 경험있는 남자 FULL TIME
HELPER구함
☎: 597−1115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AGINCOURT)
스토아 주인이 병환으로 급히 매매코자 함.
ASKING가격 $35.000. 장소 : 매우 바쁜 프라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A. E. LEPAGE복덕방)
492−7333 KEN MARESCAUX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694−7848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천5백달러
3261 DUNDAS W.
☎: 769−5956

버라이어티및 기프트가게 급매 :
주매상 $3500∼$4000
☎: 757−1097 미스타 한

그로서리및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6천달러
RENT 450달러
263 DUNN AVE.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맥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2500달러.
1430 Dundas w. ☎: 531−0773. Mr. 김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423−7939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퀸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 발행 100만 주식을 보유함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세 탁 소 매 매
수입좋은 PICK-UP세탁소 매매 : 월세 $300. 월수입
$2000이상(단. 바느질 할줄 아는 분에게 팔고 싶습니다)
1716 QUEEN ST. E. 방문요망(프라자 안)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656−7753

〈매 매〉
3년된 세탁기, 3년된 DRY MACHINE. 1년된
스토브, 1년된 냉장고, 고급 응접셋트(1년됨)를
염가에 팝니다.
☎: 275−8016

가정혐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줌)
☎: 781−7305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259−0869

미니슈퍼마켓 매매
주매상 7천달러 이상(5일영업). 렌트 $1200.
리스5년+5년. 가격 6만달러+스탁
☎: 368−1917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535−2804 미세스 김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1−519−327−8368 MR. CHAE

렌트

방세놓음 : 8월27일 입주가능. PAPE 서브웨이에서
한블럭거리(FUNISHED)
☎: 466−3764 오후4시이후 전화바람.

집세놓습니다 :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968−9450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주간女性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8236, 757−2106 홍 진 표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목일·월요일 휴업
3637 FINCH AVE. W. (B) 741 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8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북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고포특별우대…언제든지 20%할인…남자용 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선물센터

TIE CITY
Square One
275−2187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King St

주간女性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아이구, 눈에 멍이들었네요" "마누라가준 기념일선물일쎄" "무슨기념일이 었는데요?" "내가 깜박잊어버린기념일이지!"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한국일보 詩壇

어떤 개인날
崔湖林

시시비비에 시달리다가
궤도를 벗어난 바퀴처럼
훌훌이 교외로 나왔다.
황금물결 출렁이는 들판
때묻지 않은 햇살이 곱게 익고 있다.
멀찍이 홀로 앉아서
구름 떼 떼놓고 노는 산정
천년의 하늘이 우뚝 서서 굽어보고있다.
유년이 달려가던 강변
지는 해 보내고 돌아오던 들길
새삼 알몸에 숨을 내민다.
무척이나 반가운듯
바람은 악사로
바짓가랭이를 잡고 놓지 않는다.

걸 작 만 화

"Okay, Jablonski. You' rehired."
「잘한다, 채용이다」

모윤숙이 위해 生 〈183〉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노우트⑮

엘리베이터는 맨홀으로 내려와서 스스로 문을 열었다.
J씨가 눈짓으로 내게 타기를 권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며, 이것은 괜한 위험부담이 아닐까하고 나는 얼핏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라도 J씨는 그에게서 정통의 유령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에게서 머뭇거림을 빼앗아갔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느낌이었다. 하필이면 그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직장에함께 있을게 무어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신(神)의 뜻이다. 불가항력이다. 괴상한 모자를 쓰고도주위의 시선따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용기를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맨홀인가에서 엘리베이터가 멎었다. J씨와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어둑한 복도는 잠잠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꺼내더니 철그럭거렸다. 열쇠꾸러미였다. 그는 마치 죄인을 수감시키러 가는 옥리(獄吏)처럼 열쇠 꾸러미를 철그럭거리며 빈 복도를 맨끝까지 걸었다. 나는 마치 도망치기를 포기한 죄수처럼 다소곳이 그의 뒤를 따랐다.
복도의 끝에서 그는 한 도어의 손잡이에 열쇠를 꽂았다.
『나 혼자요. 혼자 살고있어요』
그가 열린 문을등지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애매하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이미 상상했던바였고, 그가 열쇠 꾸러미를꺼내 손에서 철그럭거리는 소리를 냈을 때 틀림없다고 확인까지 했던 것이다.
J씨는 현관 등의 스위치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문에서 조금 비켜서며 말했다.
『들어갑시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는 내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쯤 남겨 주었다. 미심쩍으면 언제든지 돌아가도 좋다는 여유가 그의 웃음 속에 쉬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관 안으로 선뜻 들어갔다.
따라들어온 J씨가 거실의 스위치를 올렸다.
그의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었다. 방도 서넛은 되어 보이고, 식당까지 훤히 트인 거실은 반대편 베란다의 끝이 까마득이 멀어보였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J씨는 전기히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고 그것을 내앞에 놓아 주었다. 금시 열선(熱線)이 발갛게 달아올라 내 발목에 따끈한 열기를 전해 주었다.
나는 방안의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다 말고 J씨를 보며 물었다.
『왜 혼자 사세요. 이렇게 넓은 집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코트를 벗고 내게 다가온 J씨가 내 젖은 바바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벗겠소?』
『네』
나는 바바리를 벗어 J씨에게 주었다.
J씨는 내 바바리도 현관쪽의 스탠드 옷걸이에 걸고 돌아왔다.
『누군가와 함께 살 기회는 자주 일어나요. 미스터한만 해도 내 아파트의 빈 방을 노렸었지. 시나리오 제작실로 말요. 거절했소. 얼마전에는 출장에 나가는 아가씨들이 현관쪽의 빈방을 내놓으라고… 총각에사 말을 내는게 아닌지? 그거절했소. 혹시 미스 안도 방을 넣어서 말요. 그것도 뭐다면 무조건 환영 하겠소』
『제가요?』
뭔지 나는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내가 서울분을, 아주 살러 오겠다면 말요』
J씨는 멋쩍은듯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주방쪽으로 가며 말했다.
『홍차 하시겠소? 커피?』

CENTRAL AUTO-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